(1) 송익필의 탄생과 불우한 환경

강민우: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덕대학교 자동차과 1학년에 다니다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강민우 상병입니다. 우리 부대는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이이(율곡) 선생이 강릉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이는 1536년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부 죽헌동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이이 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던 중 이이 선생과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성혼(우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여 이이를 알려면 성혼을 알아야 하고 성혼을 알려면 이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과 절친한 친구가 바로 송익필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솥을 떠받치는 세 발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 송익필 선생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저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드리고, 많은 배움을 얻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송익필: 저도 강민우 학생을 만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무척 기쁩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부담 없이 말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우: 자유로를 타고 일산을 지나면 오른쪽 멀리에 나지막하게 누운 산을 발견합니다. 파주출판문화단지 뒤쪽의 심학산(尋鶴山)입니다. 이 산 중턱에 최근 음식점이 줄줄이 들어서고 둘레 길까지 생겨나 많은 사람이 즐겨 찾습니다. 심학산 높이는 200m가 채 안 되는데 주위에 큰 산이 없어 멀리서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로 한강 하류의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구봉산(龜峰山)입니다. 이 산을 자유로에서 보면 거북(龜) 모양을 하고, 서쪽 봉우리(峰)도 거북 머리와 같아서입니다. 이 산 이름이 심학산으로 바뀐 것은 조선 숙종 때입니다. 숙종이 애지중지하던 학 두 마리가 궁궐을 도망쳐 나간 것을 여기서 찾았다고 해서, 그 후로 학(鶴)을 찾은(尋)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도 구봉산 이름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이 산 밑에 살았던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의 호가 '구봉'이기 때문입니다. 송익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민우: 먼저 송익필 선생의 개인적 약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저의 이름은 송익필(宋翼弼)입니다. 저는 1534년 2월 10일에 아버지 송사련과 어머니 연일 정씨(延日鄭氏) 부인의 4남 1녀 중, 3남으로 한성부(지금의 고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형제 이름은 모두 '필'자 돌림입니다. 첫째 장남은 송인필(宋仁弼)이고, 둘째 차남은 송부필(宋富弼)이며, 셋째인 저는 송익필이며, 넷째 아우는 운곡거사(雲谷居士) 송한필입니다.

강민우: 4남 1녀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나신 거군요. 선생님의 가계에 대해서도 마저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저의 가계는 여산(礪山) 사람입니다. 10대조인 송송례(宋松禮)는 고려 원종 때 상장

군·추밀원부사·첨의중찬을 지낸 명문가로, 원나라의 고려 침공 당시에 무신 집권 세력인 임유무를 제거하고 고려 왕권을 안정시킨 공을 세워서 정렬공의 시호를 받습니다. 그를 도왔던 두 아들 송염(宋琰)과 송분(宋玢)이 사료에 보입니다. 이러한 가계는 이후로 크게 현달하지 못하다가 고조부인 송근(宋根), 증조부인 송소철(宋小鐵)을 지나서 조부인 송린(宋璘)이 잡직의 벼슬을 지내게 됩니다. 할아버지 송린은 송승산(宋承山)의 서자로,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아버지 송사련 때에 와서 경기도 고양(高陽)으로 이주하여 대대로 살다가 고양의 구봉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부친 송사련에 이르러 집안이 매우 융성해졌다지요.

송익필: 아버지 송사련은 관상감 판관의 관직에 올랐고, 신사무옥(辛巳誣獄, 1521) 이후에는 당상관(堂上官, 정3품)인 첨지 중추부사 절충장군의 벼슬을 지냅니다. 아버지 송사련에 와서 비로소 집안이 번창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신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민우: 그 내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할아버지 송린은 황해도 배천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안당(安塘) 집안의 노비이자 그의 이복 여동생이 되는 감정(甘丁)과 결혼하여 송사련을 낳습니다. 감정은 안당의 아버지 안돈후(安敦厚)와 그 집안의 노비였던 중금(重今)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할아버지 송린은 잡직을 지내고 관상감 판관에 오르며, 후일 아들 송사련도 외가인 안씨 집안의 도움으로 관상감 판관을 지내며 안씨 문중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보게 됩니다.

강민우: 안씨 집안과 좋은 관계를 지내던 송사련은 뒷날 '신사무옥'을 일으키는 반역을 하였다지요.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송익필: 그 배경은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정치적 배경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왕조의 건국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훈구세력과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던 지방의 사림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게 되어 사화(士禍)가 거듭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안당은 중종 초기 사림의 대표적 인물로서, 도학의 시조로 불리는 조광조(趙光祖)를 천거합니다. 안당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등 사림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 사림의 기대가 크던 인물입니다.

강민우: 기묘사화(己卯士禍)는 1519년(중종 14) 11월 조광조·김정·김식 등 신진사류가 남곤·심정·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안당이 사림의 편에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당을 제거하고자 신사년(辛巳年, 1521) 9월에 사림들을 미워하던 훈구세력인 심정(沈貞) 등은 '안당이 국사를 그르친 간신의 괴수'라 하여 관직을 삭탈합니다. 이어서 안당의 아들인 안처겸(安處謙) 등을 탄핵하여 각각 죄를 얽어 관직을 삭탈

합니다. 그해 10월에 안처겸은 모친상을 당하여 처가에 있으면서 이웃에 사는 이정숙(李正叔)·권전(權磌) 등과 함께 담론하다가 “심정과 남곤의 무리를 제거한다면, 나라도 유지하고 사림도 보전할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송사련도 같이 있었는데, 이에 송사련이 안처겸의 말을 빌미로 하여 그를 역모의 주동자로 만듭니다.

강민우: 이 일로 ‘신사무옥’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신사무옥은 무옥(誣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사년(1521, 중종 16)에 발생한 무고 사건입니다. ‘무고’는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을 말합니다. 1521년 안처겸 등이 기묘사화를 일으켰던 심정·남곤을 제거하고 경명군(景明君: 성종의 서자 왕자)을 추대할 것이라는 고발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송사련입니다. 송사련의 고발 이후 임금의 특명에 따라 죄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결국 안처겸과 그의 아버지 안당, 동생 안처근(安處謹) 등 10여 명이 처형되고, 약 백여 명이 유배됩니다. 이 사건은 신사무옥 외에 ‘안처겸 옥사’라고도 불립니다.

강민우: 안당의 아들을 고발한 송사련은 그 상으로 당상관인 절충장군의 직위에 오르게 되어 여생을 마칠 때까지 풍족하게 살았다지요. 후일 훈구세력이 축출되고 사림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왔을 때는, 송사련은 이미 죽어 없어지고 그의 사림에 대한 죄과는 고스란히 식솔들에게 남겨집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 송사련은 자식처럼 온정을 베풀어 주고, 벼슬도 마련해주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까지 맡겼던 외가의 집안을 고발하여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익필: 안당의 부친인 안돈후는 부인이 죽자, 그 형의 시녀였던 중금(重今)과 결혼하여 얻은 딸 감정과 할아버지 송린이 결혼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송사련은 외할머니인 중금이 천민이고, 모친인 감정 또한 그 당시 모계법(母系法)에 따라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송사련 또한 천민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며 사람들의 뜻을 잘 헤아렸던 송사련은 출세욕과 더불어 신분 제약을 벗어나고자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그럴듯하게 속여서 고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강민우: 그렇지만 송사련은 여생을 마칠 때까지 풍족하게 살았으니, 송익필 선생도 생애의 전반기는 풍족하였을 듯합니다.

송익필: 저 생애의 전반기에는 신분적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구속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들과 교류하여 4남 1녀 가운데 딸은 임금의 친척인 한산수(漢山守)와 혼인합니다. 저 또한 명문가인 창녕 성씨와 혼인하여 큰아들인 취방(就方)을 낳고, 후일 작은 부인인 수원 최씨에게서 취대(就大)와 취실(就實)을 낳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형제들은 모두 재주가 출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송익필 선생과 아우 송한필(宋翰弼)은 학식과 문장이 더욱 뛰어났다지요. 선생님은 7~8세부터 한시를 지어 이름이 나기 시작하였고, 후일에는 그 당시 이이·최립·백광훈·윤탁연·이산해·이순인 등과 함께 8대 문장가로 명성이 드높았다지요.

송익필: 넉넉한 가세 속에 어려움 없이 학문에 정진하던 33세(1566) 무렵, 저의 신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문정왕후가 죽으면서 훈구세력들이 몰락하고 사림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전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송사련의 '신사무옥' 고발로 삭탈되었던 안당이 복권되고, 이어서 1575년에는 안당에게 정민(貞愍)의 시호가 내려집니다. 이와 동시에 저의 가문에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해에 아버지 송사련은 죽지만, 다시 11년 뒤인 1586년에는 안당의 아들인 안처겸 등이 무죄로 밝혀져서 복권되고, 송사련의 관직이 삭탈 됩니다.

강민우: 이러한 정치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자, 선생님은 부친의 허물에 대한 사림들의 미움을 뒤로 하고, 고양의 구봉산(현재의 파주시 심학산) 아래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되었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성혼·이이·정철 등과 친구로서 변치 않고 우정을 맺어 왔습니다. 50세 때(1583)에 동서의 당쟁이 심해져서 박근원·송응개·허봉 등 동인들이 당시의 병조판서였던 이이를 탄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저는 성혼과 함께 이이를 구원하는데, 이로써 동인들이 귀양을 가는 계미삼찬(癸未三竄)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민우: '계미삼찬'은 1583년 동인 계열의 박근원(朴謹元)·송응개(宋應漑)·허봉(許篈) 등이 이이를 탄핵하려다 모두 유배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익필: 다음 해(1584)에 이이가 죽자, 동인들은 대사간 이발과 대사헌 이식을 움직여서 심의겸을 논죄할 때 "이이와 성혼은 심의겸과 생사를 같이하는 친구로서 조정을 어지럽힌 장본인"이라고 탄핵합니다. 이때 이이의 제자 이귀(李貴)가 스승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는데, 그 상소문의 문장과 논리가 정연해서 이귀가 지은 것으로 보지 않고 제가 기초한 것이라 간주하여 동인들이 저를 '서인의 주모자'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동인들은 안당의 집안 후손을 부추겨 송씨 집안들이 안씨 집안의 노예라는 구실을 붙여서 선생님의 집안을 천민으로 바꾸려는 소송을 내게 하였군요.

송익필: 결국에는 저의 집안을 노비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이는 동인들이 이이와 성혼을 공격하다가 이이가 죽자, '서인의 주모자는 송익필이다'라고 하여 그 화를 저에게 전가하고 당쟁의 희생물로 삼고자 한 데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그리하여 53세 되던 해(1586)에는 안처겸 등의 '신사무옥'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아버지 송사련은 관직이 삭탈됩니다. 마침내 저의 집안 일족 70여 인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랑하는 지경에 이르고, 저는 정철·김장생 등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하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강민우: 또한 56세 되던(1589)에는 '정여립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선생님과 아우 송한필 형제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지요.

송익필: 정여립의 난으로 발생한 '기축옥사'로 인해 권력을 잃게 된 동인들이 서인에 대한 적대 감정에서 그 화의 대상으로 저의 형제를 지목합니다. 송익필 형제가 천민으로 전락시

킨 것에 대한 불만과 원한이 쌓여서 정여립과 연계하여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조헌(趙憲)이 또다시 송익필 형제의 무죄를 상소하자, 더욱 동인들의 화를 사게 되고, 마침내 선조 임금은 격노하여 1589년에 체포령을 내립니다. 저는 정철의 도움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피신하고 있다가 한양으로 올라와서 왕명으로 아우와 함께 구속됩니다. 그러다가 57세 되던 1590에 구속에서 풀려납니다.

강민우: '정여립 사건' 즉 기축옥사는 1589년 전주에 사는 정여립이 서남 지방에서 일시에 거병하여 서울을 침범한다는 모반입니다.

송익필: 58세 되던 해(1591)에는 정철이 왕세자 책봉 문제에 연루되어 좌의정에서 실각하고 유배됩니다. 이와 연루하여 10월에 북인 일파인 정인홍(鄭仁弘) 등이 사헌부 간관을 사주하여 임금에게 저의 죄를 주청하여, 형조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12월에 저는 평안도 희천(熙川)으로, 아우 송한필은 전라도 이성(利城)으로 유배됩니다. 다음 해인 1592년에는 귀양지인 희천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인근의 명문산(明文山)으로 피신하였다가, 60세 되던 1593년 9월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강민우: 그해 12월에 친구인 정철이 죽고, 1594년에는 둘째 형 송부필과 동생 송한필이 잇달아 죽게 되는군요.

송익필: 저는 63세 되던 해부터는 만년을 충남 당진 면천(沔川) 마양촌(馬羊村)의 첨주 김진려의 집에서 우거하게 됩니다. 1598년에는 이이와 정철에 이어 성혼이 죽게 되고, 아내 성씨마저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66세 되던 해(1599)에 아들 취대에게 성혼과 이이를 비롯한 여러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글을 정리하게 하여 「현승편」을 엮고, 8월에 면천의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이 당진군 현북면 원당동에 장사 지냅니다.

강민우: 그러다가 1910년에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고 '홍문관 제학'에 추증됩니다. 근래 들어 1991년 송익필 선생이 대대로 살던 곳으로 전해지는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183-3번지 유역의 심학산 자락에는 권태훈(權泰勳)에 의해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